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2년 5~6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다가치 보육,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 소규모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모델 개발 및 보육 품질향상을 위한 2022년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발대식 개최 -

※ 다가치 보육: 4~5개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원아 모집, 물품구매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재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5월 30일(월)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 아트홀’에서 ‘2022년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은 소규모 어린이집 4~5개를 유형별(가정, 민간, 혼합, 국공립 거점)로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공동(공통,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협력모델이다.

〈어린이집 공동(공통, 선택) 프로그램〉

구분	공동 사업	선택 사업
운영관리	공동 원아 모집, 교재교구 공유	공동급식, 물품 공동 구매(대여) 차량(통학용, 행사용) 공동 운영 등
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 공동 편성 및 운영	공동 야간연장보육(거점형, 협력형 등) 현장학습 행사 공동 운영
교사지원	교사 교육, 힐링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사 동아리, 동료교사 멘토링 등
부모지원	부모교육 및 공동행사 운영	지역사회연계 활동 공동 운영

■ 이번 사업은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정원충족률 저하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대표 박상희)에 의뢰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규모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모델을 개발하였다.

'21년 소규모 어린이집 규모화 연구 개요

-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대표: 박상희/ 책임연구원: 양미선)
- 연구기간: '21.6월~11월
- 연구내용: 소규모 어린이집 협력모델 개발(시범 적용)
 - 모델 시범 적용: 3개 광역 - 14개 그룹(57개 어린이집)*
 - ① 서울(마포구): 5개 그룹(18개소), ② 인천: 4개 그룹(19개소), ③ 충남: 4개 그룹(20개소)
 - 연구 성과: 어린이집 간 정보·자원 교류를 통한 공유(규모) 경제 실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부모·교직원 만족도 제고 및 원아 모집 증가 확인

○ 2022년에는 작년에 개발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모델에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를 활용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제공, 컨설팅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한다.

'22년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추진개요

□ 목적: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및 보육 품질향상 지원** 모델 개발

* 유형별 4~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그룹으로 협력(규모화)사업 추진

**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사업 규모: 6개 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 30개 그룹(148개 어린이집)

- ① 인천: 5개 그룹(25개소), ② 울산: 5개 그룹(25개소), ③ 경기: 5개 그룹(24개소)
- ④ 강원: 5개 그룹(24개소), ⑤ 충북: 5개 그룹(25개소), ⑥ 충남: 5개 그룹(25개소)

A(가정형)	B(민간형)	C(혼합형)	D(거점형)
			

□ 향후계획: 단계적 전국 확산, ('23) 66개 → ('24) 132개 → ('25) 197개→('26) 263개 그룹

○ 2022년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오는 11월까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과정·재무회계 컨설팅 및 평가지표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그룹)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 이번 행사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간 협력을 증진하고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대식으로,

○ 2022년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추진 방향 안내, 2021년 운영 사례발표, 2022년 지역 특색사업 소개 및 응원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으며,

○ 행사 현장과 어린이집을 영상(ZOOM)으로 이원 연계하여 사업지역의 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148개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였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저출생 현상 장기화 지속으로 어린이집의 위기 속에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이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보육 기반을 만들어가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공유·나눔·상생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육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고, 부모가 신뢰하고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현장에 계신 원장님, 선생님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51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2022.5.30.

II

향후 시·도 및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

- 부산시 및 전북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설치·운영 예정 -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 「노후준비 지원법」개정(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

- 이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 정비를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7조의4)
 -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정(안 제8조, 제10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청하거나 중단·폐지·재개하려는 경우, 신청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등 정비(안 제11조)
 - 보건복지부 장관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비하였다.
-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속 발굴 및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537.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2022.6.14.

Ⅲ

‘글로벌 백신 허브화’ 주한 외교단과 함께 한다

- 프랑스, 브라질, 베트남 등 주한외교단 초청 브리핑 개최 -

■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목) 1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2022 세계 바이오 서밋’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브리핑」은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장(이강호)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18개국* 주한대사관에서 약 20여 명의 외교관이 참석하였다.

* 남아공, 라오스, 모로코, 베트남, 브라질, 브루나이,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알제리, 엘살바도르, 영국, 유럽연합, 케냐, 콜롬비아,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가나다 순)

○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국 보건장관 등 주요 인사 초청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교육 프로그램(약 370명 규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2022년도 운영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계획 〉

- ① (6월, 9월) 아·태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이론 3주, 실습 5주, 중·저소득국 60명)
- ② (7월)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이론 2주, 중·저소득국 110명/국내 40명)
- ③ (10월)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이론 3주, 중·저소득국 200명/국내 100명)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World Bio Summit 2022)〉

■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백신·바이오 분야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신·바이오 헬스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2)」을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0월 25일~26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 「2022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전 세계 리더(각국 정상·보건장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민간자선단체 대표, 백신·감염병 전문가 등)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백신·바이오 기술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미래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1일(10.25.(화))은 각국 정상·국제기구 수장이 참여하는 개회식으로 시작하여, 코로나 19로 촉발된 국제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선 백신·바이오 기업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 이어지고, 국내외 귀빈을 위한 환영 행사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제2일(10.26.(수))은 각국 보건장관의 특별연설로 시작하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백신 연구·개발의 미래 투자 전략, 차기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국제전략, 백신·바이오 의약품 및 원부자재 공급망, 글로벌 진단기기 개발현황과 전망, 백신·바이오 의약품 규제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세계 바이오 서밋」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백신·바이오 의제를 선도함으로써 보건 분야의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 혁신기술과 인프라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제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전략적 제휴 기회로 삼아,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바이오 산업 선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 대한민국은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의 공동 운영위원회 출범('22.5월), 아·태지역 생산인력에 대한 '백신 생산공정 교육' 시작('22.6월) 등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

*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기관(training hub)

- 그 첫 사업으로 6월 6일부터 아·태지역 중·저소득국에서 선발된 35명의 교육생*이 대한민국 정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기획한 ‘아·태 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인천 송도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에서 받고 있다.

* 동티모르 1명, 라오스 1명, 몽골 1명, 방글라데시 6명, 베트남 7명, 부탄 2명, 인도네시아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캄보디아 2명, 태국 4명, 파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 국제적 기준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파트너를 추가로 발굴하여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중·저소득국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제백신연구소(IVI)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이전 수혜국*과 백신 생산시설을 보유한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 생산공정 기본교육(7.18~29.)’과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10월)’을 시행한다.

* 방글라데시, 세네갈,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 르완다, 가나, 모로코, 말레이시아, 파나마, 태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 특히, 7월에는 베트남·세네갈·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총 30여 개국에서 선발된 120여 명이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백신·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면역학, 역학, 생산공정기술, 공정개발, 규제과학, 임상시험설계 분야의 기초과정을 수강할 예정이다.

■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 감염병을 대비하고 보건분야 의제를 선도하여 국제 리더십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라며,

-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공인받은 한국은, 이번 가을 정상급 인사가 모이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하여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올해 제1회로 개최되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을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정착시켜 국제사회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백신·바이오헬스 분야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전달했다.

참고 1 2022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2) 개요

■ 추진 배경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정상에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비전 제시
- 전 세계 혁신기술·인프라 국내 집약·유입 계기로 삼아, 보건분야 국제 리더십 확보 및 신종감염병 대비 국민건강 보호 역량 확보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 World Bio Summit 2022(WBS 2022)
- [일시·장소] '22. 10. 25. ~ 26. (2일간), 서울(장소 섭외중)
* 제73차 WHO 서태평양 지역회의(필리핀 마닐라, 10.24.~28.)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 [주제] 백신·바이오헬스의 미래
- [공동주최] 대한민국 정부, 세계보건기구(WHO)
- [참석]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대표 등 300여 명 규모

국가 정상	WHO 기술이전·인력양성 허브 주요 참여국 및 주요 동맹 등 정상
국제기구 수장	WHO, CEPI, GAVI, MPP 등 백신·바이오분야 국제기구 수장
민간자선기금	웰컴트러스트 등 대표
글로벌 기업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 제네카·바이오엔텍 등 글로벌 백신기업 대표
백신·감염병 전문가	美 NIAID 소장, 펜실베니아대학 와이즈만 교수, WHO 수석과학자 등

- [운영] (1일차)개회세션·기업세션, (2일차)축사·본세션·토의세션·부대행사

1일차	개회세션	대한민국·WHO 개회사, 각국 정상 축사, 주요인사 기조연설
	기업세션	글로벌 백신·치료제·원부자재기업 및 국내 바이오기업 발제
	환영행사	주요인사 환영 만찬 및 문화행사
2일차	축 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 등 특별연설
	본 세션	①인력양성 허브 ②백신 연구·개발 ③넥스트 팬데믹 대응
	토의세션	④백신·바이오의약품 및 원부자재 공급망 ⑤진단기기 개발 및 전망 ⑥의약품 규제협력
	부대행사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WBS 2022 특별 세션

- [환영 행사] 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로 구성, 문화 한류와 바이오 헬스 한류 글로벌 리더십 확대 계기로 활용

참고 2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개요

■ 개념 및 추진배경

- (개념)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역량 증대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기관(training hub)
- (추진배경) 코로나19 계기, WHO는 백신 불평등 해소 및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중·저 소득국에 백신 생산역량 구축 추진
 - 생산역량 확충을 위한 한 축으로 한국을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22.2.)

■ 추진현황

- ① (운영체제 구축)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 설립,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제 마련
 - * 제1차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개최(‘22.5.12)
- (교육운영) 올해 글로벌 교육생 370명+국내 140명, 총 510명 대상 교육 시행

〈 2022년도 운영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계획 〉

- ① (6월, 9월) 아·태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이론 3주, 실습 5주, 중·저소득국 60명)
- ② (7월)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이론 2주, 중·저소득국 110명/국내 40명)
- ③ (10월)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이론 3주, 중·저소득국 200명/국내 100명)

- (교육시설 확충) 전담 기관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추진
 -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통해 실습 중심 교육실시, 연 2,000명 이상 양성('26년~)
- (글로벌 협력) '중·저소득국 백신 접근성 향상'의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등과 협력체계 구축
 - * 빌게이츠재단, 감염병혁신연합(CEPI), 지역개발은행(ADB, IDB)과 협력방안 논의
- (국내 산업 연계) 국내인력 교육 참여* 및 기업**·대학·의료기관 등 백신·바이오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 * 전체 과정의 약 20% 내국인 선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중·저소득국 네트워크 형성 촉진
 -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머크, Biovac 등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551.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2022.6.16.

IV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

- 이기일 제2차관,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 화상 참석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월 20일(월)~21일(화)간 주요 20개국(G20) 「보건 장관회의」와 「재무·보건 합동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대면(욕자카르타)·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등이 참석하였다.
 - 6월 20일 개최된 보건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 ▲국경 관련 지침(프로토콜)의 조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등 의료자원의 국제 생산기지 및 연구 중심지(허브) 확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기일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포함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 백신 등 의료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G20 주도의 협력구조(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과 유전자 정보의 적시 공유의 중요성, 중·저소득국가의 의료자원 생산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를 통해 국가 간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여 새로운 변이 발견과 백신 개발을 촉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으며,
- * 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 공공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유행 및 팬데믹 바이러스 데이터에 대한 신속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비영리기구
- 지식공유와 관련하여,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히며, G20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며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해진 결핵 대응과 원헬스* 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 원헬스(One-Health): 사람의 건강은 동물 및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적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나가는 전략

** 항생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 세균 등이 항생제에 대해 저항능력이 생겨 생존 혹은 증식되는 것으로 감염 질환 치료가 어려워진 상태를 총칭

- 이기일 제2차관은 결핵 등 기존 감염병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헬스 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한국의 범부처 공동대응체계 등을 소개하였다.

- 6월 21일 개최되는 재무·보건합동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 마련 및 재무-보건 분야의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한다.

* 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 감염병 대응, 국제 식량문제 대응 등 공공분야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자금조달 시스템

- 이기일 제2차관은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간 보건위기에 대한 인식공유와 긴밀한 협력 없이는 보건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자원조달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재무-보건 분야 간 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효율적인 기구 설립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협력구조(거버넌스)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언할 예정이다.

- G20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발전시켜 국제보건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올해 「보건장관회의」와 「재무·보건 합동장관회의」는 두 차례 개최되며, 2차 회의는 각각 10월과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기일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보건 회복력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9561.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2022.6.21.